

제거되는 생명

이춘성 (고신대학교 일반대학원 기독교윤리 박사과정)

1. 제거된 생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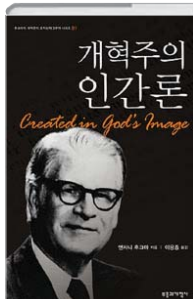
고대 메소포타미아와 그리스에서는 인간의 가치를 기능적으로 이해했다. 신들에게 인간들은 자신들의 식량을 생산하고 허드렛일을 대신 시키기 위해 만든 도구적인 존재들이었다. 오늘 날로 치면 농기계나 세탁기나 다를 것이 없으며, 4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인공지능을 탑재한 로봇과 같은 존재가 사람이었던 것이다. 만약 누군가 가족과 사회에서 아무런 기능도 할 수 없는 존재로 태어난다면 그는 살 가치가 없는 존재, 반드시 제거 되어야하는 존재로 간주되었다. 이러한 이유로 이들 나라에서는 0~3세 사이의 아이들은 부모가 아이의 살 가치를 판정할 수 있었으며, 장애를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주변에서 반드시 죽이도록 권유 받았다. 이 아이들은 사회에서 잉여 인간이며, 사회적 불행이고, 가족의 수치로 받아들여졌던 것이다. 이는 1세기 무렵 사해 사본을 작성한 것으로 알려진 유대교의 쿨란 공동체가 남긴 문서에서 확인 할 수 있다. 이들은 장애인들은 하나님의 나라에 참여 할 수 없다고 생각하여 자신의 공동체에 장애인들을 포함시키지 않았다. 비록 장애 영유아를 살해하지는 않았을 지라도 이러한 인간에 대한 이해는 상당히 경건하고 합리적인 입장을 취하는 바리새파들도 동일하였

으며, 대부분의 이스라엘 사람들이 공유 했던 당시의 생명과 장애에 대한 상식이었다.

2. 제거되는 생명

이러한 인간 생명에 대한 이해는 과학과 의학의 발전에 발맞추어 그 형태를 변형하여 현대에도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그 대표적인 것이 바로 산전검사를 통한 장애 판별과 이에 뒤따르는 낙태이다. 2010년 보건복지부 조사에 의하면 우리나라 한 해 약 17만 건의 낙태가 시행되고 있는데, 그 중 16.3%, 약 2만 건 이상의 낙태가 태아의 건강 때문이었다. 이 조사를 신뢰한다면 이들 대다수는 산전검사를 통한 낙태임이 분명하다. 다양한 산전검사 기법을 통해 감별된 상당수의 장애태아들이 부모의 따뜻한 눈길 한번 마주치지 못하고 낙태로 사라지고 있다는 것이다.

과거 산전검사가 어려웠던 시기에는 비록 장애로 인한 본인과 가족의 고난에도 불구하고 생명으로서 살 수 있는 기회라도 주어졌다. 하지만 이제는 상당수의 장애를 지닌 태아들이 생명의 기회조차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박탈당하고 있다. 이에 대해서 메일렌더는 현대 산전검사와 유전자검사가 '사생활'과



지금 읽기

『개혁신주의 인간론』

앤서니 후크마.

이용중 옮김.

서울:부흥과개혁사, 2012.

‘선택’이라는 언어와 결합하였다고 지적한다. 그러므로 정부는 결함이 있는 태아의 낙태를 정부의 공적인 판단의 대상에서 제거하여 사적이며 개인적인 선택의 대상으로 여긴다는 것이다. 이는 달리 말해 태아를 독립된 생명이 아닌 산모에 기생하는 산모의 소유물로 여긴다는 뜻이다. 비록 과거와 같이 장애를 죄라고 이야기 하는 사람들은 없을 지라도 여전히 장애는 부모와 장애 당사자의 고통을 유발하는 제거되어야 할 생명인 것이다.

3. 불필요한 고통과 생명

이에 대해서 푸르디(Laura M. Purdy)는 *Genetics and Reproductive Risk: Can Having Children Be Immoral?*에서 태아를 가능성 있는 인간(possible human)이라고 정의하고 그 아이가 태어났을 때, 과연 어떤 결과를 가져올 지 미리 예측해봐야 한다고 주장한다. 만약 태아의 출생이 유전병인 헌팅턴 질병(Huntington's Disease)처럼 불필요한 불행을 가정에 가져다주고 당사자도 그러한 결과가 당연히 예측된다면 낙태를 심각하게 고려해 봐야한다는 것이다. 그러한 근거로 그는 출산의 목적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질문한다. 그는 “자녀를 원하는 이유는 가정의 삶을 경험하기 위한 것이다. 이는 사랑하고 동반적 감

정, 아이가 성장하도록 돌보고, 고통과 성취를 나누고, 다음 세대의 구성원을 형성하는 것을 돕는 것이다.”라고 말한다. 이러한 근거로 그는 입양이나 산전 검사와 같은 새로운 출산 기술이 유전적 결함을 후세대에 물려주지 않도록 돕는 좋은 도구라고 주장한다.

위와 같은 주장에는 미리 예측되는 고통은 불필요한 고통이라는 전제가 있다. 그러기에 이러한 고통을 미리 제거할 수 있는 가능한 방법을 개인이 선택하여 사용하도록 해 주는 것이 윤리적이라는 것이다. 이는 현대인의 판단을 지배하는 공감(compassion)과 인정(consent)이라는 두 핵심 덕목(cardinal virtue)에 기인한다. 상대가 남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다면 상대의 고통을 무조건 공감해 주고 인정해 주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태아는 가능성 있는 인간(possible human)일 뿐 아직 인간이 아니기 때문에 불필요한 고통이 예상 될 경우, 부모 개인의 고통에 공감하고 그의 선택을 인정하여 낙태하는 것이 윤리적인 선택이라는 주장이다. 그렇지만 푸르디가 주장하는 ‘불필요한 고통’이란 어쩐지 종교적인 언어인 ‘죄’라는 말과 매우 유사한 말로 들린다. 종교에서 죄란 제거되어야 할 대상이며, 인간의 행복을 가로 막는 고통을 유발하는 근본 원인이기 때문이다. 비종교화, 세속화 시대인 현대에서 이를 지칭하는 용어는 달라졌지만 그 본래의 의미는 여전히 살아서 유전되고 있다. 그러면 기독교도 일반 종교와 동일한 의미로 죄를 이해하고 있을까?

4. 생명의 가치

기독교는 ‘죄’란 단어를 일반적인 종교와 다른 의미에서 사용한다. 또한 이를 해결하는 방법에 있어서도 확연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기독교의 죄란 단순한 윤리적, 도덕적 행위의 어긋남이라기보다는 인간이 하

나눔처럼 되려는 욕망으로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가 단절된 상태를 의미한다. 현상이나 행동이 아니라 상태에 더 큰 비중을 두고 있다는 것이다. 또한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은 선행을 통해 자신의 죄행을 속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의 무한한 속죄를 믿는 것이다. 이는 인간의 힘으로 불가능하며,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죄에서 구원 받을 수 있다는 의미이다.

이를 볼 때, 기독교의 죄 개념은 인간의 속죄를 통해 죄를 제거할 수 있다는 타 종교의 죄 개념이나, 불필요한 고통을 개인의 선택과 인간의 의학적 기술을 통해 제거할 수 있다는 주장과는 결을 달리 한다. 기독교는 ‘불필요한 고통’을 제거할 수 있는 분은 유일하게 성자 예수님뿐이라고 주장하기 때문이다. 또한 기독교에서는 특정한 사람만이 아닌 모든 인간은 죄, 곧 불필요한 고통 속에 있다. 단지 장애는 그 다양한 현상에 지나지 않는 것이다. 그 현상은 근본적으로 제거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또한 생명의 가치는 죄와 별개이다. 생명의 가치는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하나님의 신적 명제에 기인한다. 인간의 생명을 동물이나 곤충과 다르게 대하는 이유는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형상이란 인간의 어느 부분이 하나님의 성품을 닮았다거나, 창조주로부터 위임받은 청지기적 기능을 수행하고 있거나, 어느 특정 부분이 닮았다는 것으로 단순하게 설명될 수 없다. 화란의 개혁주의 신학자인 바빙크는 인간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말한다.

우리 안에 있는 “어떤 것”이 아니라 인간 자체, 즉 전인이 하나님의 형상이다...중요한 것은 전인이 총체적 하나님의 형상, 즉 삼위일체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사실을 고수하는 것이다. 인간의 영혼, 인간의 모



지금 읽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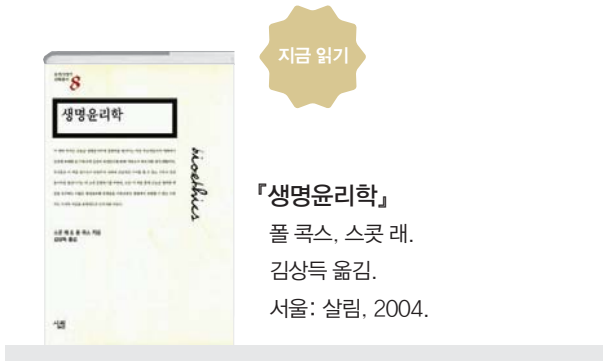
『기독교적 관점에서 본 생명윤리』

길버트 메일랜더.
박재현, 이일학 옮김.
서울: 킹덤북스, 2015

든 기능, 지식, 의, 거룩함의 미덕, 그리고 인간의 몸조차 하나님을 형상화한다. 따라서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을 지니거나 갖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형상이다. 인간으로서 우리는 하나님의 모양이고 하나님의 소생이다. 그러므로 하나님 자체, 즉 신성 전체가 인간의 원형이다.(바빙크, 『개혁과 교의학 단권 축약판』, 564쪽)

이러한 이유로 인간이 비록 죄로 인하여 타락 했을지라도 인간의 존귀하고 아름다우며, 살 가치가 있다는 것이다. 바빙크는 이러한 인간을 향해 성경은 지금도 이렇게 말씀하신다고 주장한다. “타락한 인간도 여전히 하나님의 형상의 담지자다.”(666쪽)

이러한 하나님의 형상으로서의 생명의 의미를 이해했다면 우리는 이렇게 말해야 한다. “장애 태아가 참으로 인간이라면 장애를 이유로 임신중절을 하는 것은 가장 사악한 형태의 차별이다.”(생명윤리학, 196). “장애인은 더 적게 차별 받아야 하는 것이 아니라 더 많은 보호를 받을 가치를 지닌 존재이다.” 더 사랑 받을 가치가 있는 존재라는 것이다. 메일랜더는 산전검사를 통한 장애 태아를 낙태하는 것을 거부하는 것은 전 인류를 향해 다음과 같이 말하는 것이라고 주



지금 읽기

「생명윤리학」

폴 콕스, 스콧 래,
김상득 옮김.
서울: 살림, 2004.

장한다.

“당신은 존재해서 좋습니다.”

5. 장애와 생명(요한복음 9장)

요한복음 9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날 때부터 소경된 자를 고쳐 주신 사건이 나온다. 길을 지나가던 예수님에게 제자들이 다음과 같이 물어 본다. “랍비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니까 그의 부모니까.”(2절) 제자들이 이 같은 질문을 한 이유는 8장에서 유대인들과의 대화 가운데 자신을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었다”(요한복음 8장 58절)고 말한 것과 연관이 있다. 또한 8장 52절에서 예수님은 자신을 영원 가운데 있는 존재로 소개한다. 이것은 자신이 성자 하나님이라는 것과 인간에게 영생을 줄 수 있는 유일한 존재라는 것을 밝히신 것이다. 이러한 예수님의 자신에 대한 소개와 관련하여 제자들은 예수님에게 소경이 날 때부터 소경된 이유를 질문하고 있다. 후천적으로 소경이 되었을 경우 그 원인이 분명하게 있는 데, 선천적인 소경은 그 원인을 알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러기에 그 원인은 영원 속에 계시는 하나님만이 분명하게 알 수 있

다. 이 질문은 예수님이 창세전부터 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란 사실을 드러내고 있다. 그렇지만 실제로 제자들이 그러한 심오한 뜻을 알고 이런 질문을 하였는지는 알 수 없는 일이다. 다만 베드로가 예수님에 대해서 고백 했듯 자기도 모르게 성령님이 이러한 질문을 하게했다는 것이 더 이해하기 쉬울 수 있다.

이러한 제자들의 질문에 예수님은 단호하게 부모의 죄도, 소경 자신의 죄도 아니라고 답하신다. 예수님은 소경이 선천적으로 소경이 된 이유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고 말씀하셨다. 이 답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일까? 이에 대한 설명은 다음 절인 4~5절에 나온다. “때가 아직 낮이매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란 바로 예수님을 통한 낮과 빛의 사역이다. 요한복음은 낮과 밤, 빛과 어둠 등의 다양한 대비가 나온다. 이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인 죄에서 인간을 구원하는 사역을 설명하는 단어이다. 9장에는 낮과 밤, 빛과 어둠, 장애인(소경)과 정상인(바리새인)의 대비가 나온다. 이를 통해 일차적으로 예수님이 말씀 하시고자 하는 것은 구원은 그 외모의 부족함이나 결함이 있는 자들에게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모든 인간을 위한 것이라는 점이다. 오히려 스스로 완전하다고 생각하며, 정상이라고 말하는 자들의 교만함이 구원의 복음을 받아들이기 어렵게 만든다.(요한복음 9장 39~41절)

예수님은 소경의 눈을 고쳐주셨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소경의 장애와 죄가 아무런 관계가 없다고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를 고쳐 주신 이유는 무엇일까? 이는 사회적이며 신체적으로 가장 약하며, 차별 받는 소경을 고쳐 주심으로 구원의 보편성, 누구나 구원을 받는 데 어떤 조건도 요구 되지 않으며, 하물며 안식

일이라 하여도 구원이 필요한 자들에게 구원을 베푸는 것을 보여 주시고자하는 뜻이 있다. 그러나 바리새인들과 유대인들은 구원도 율법적이며, 사회적인 관습 가운데 이루어져야한다고 생각하면서 예수님의 구원을 완강히 거부하였다. 그러니 예수님께서서는 차라리 이들이 소경이었다면 자신의 죄의 상태를 인정하지 못하게 만드는 율법과 사회적인 인정으로부터 자유 했을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이다.

소경은 예수님의 치유를 받고 눈을 떠 보았지만 실제로는 예수님을 본적이 없었다. 하지만 소경은 본적 없는 예수님을 하나님에게서 온 존재라고 믿었다.(32~33절) 이미 예수님이 말씀하셨듯이 그에게 “보지 못하고 믿는” 복이 임했던 것이다. 그러나 바리새인들과 유대인들은 그에게 이렇게 말한다.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네가 온전히 죄 가운데서 나서 우리를 가르치느냐 하고 이에 쫓아내어 보내니라”(34절) 이들에게 소경은 자신들이 만든 하나님 나라에서는 제거되어야 하며, 쫓아버려야 할 ‘불필요한 생명(고통)’이었던 것이다. 이러한 상황은 여전히 지금도 우리 가운데서 자행되고 있다. 그것도 은밀하고 은폐된 가운데서, 또한 너무나 뻔뻔히 합법적으로 말이다.

6. 가장 연약한 생명을 돌보는 것이 생명 존중

“죄 가운데” 이것은 현대에 “불필요한 고통 가운데”라는 말로 바뀌어 우리 사회의 문화와 관습, 윤리적 규율 가운데 자리하고 있다. 비록 태어난 장애인들을 위한 여러 복지 정책과 사회적 인식이 인권이라는 차원에서 개선되고 있지만 과거보다 더 많이, 은밀하게 장애와 장애인은 사회로부터 제거당하고 있다. 태어날 권리조차 부여되지 않기 때문이다. 이것이 이 시대에 가장 잔인한 생명 경시이며 홀로코스트이다. 오늘날 이루어지는 산전검사와 이로 인한 공식적인

낙태가 바로 합법이란 태두리 안에서 은폐된 추악한 죄이다. 지금도 예수님은 생명을 대하는 신자의 태도를 통해 세상을 향해 외치신다. 은폐된 죄를 낮의 밝은 빛 가운데 드러나게 하라고... 그리고 누구든지 어떤 조건에 있든지 하물며 부모로부터도 거절당한 보이지 않고 자궁 속 장애 태아의 생명이라 할지라도 “당신은 존재해서 참 좋습니다.”라는 말을 들을 귀한 존재라고..., 구원이 필요한 존재라고... 이렇게 외칠 때에야 비로소 우리가 믿는 복음이 생명을 위한 위대한 구원의 이야기이며 진리라는 사실이 우리 안과 밖에 분명하게 나타날 것이다. 복음은 단순한 사상이나 이론이 아니라 진리이다.

* 지난 원고의 오류

-요한 갈통의 ‘적극적 평화’와 ‘소극적 평화’라는 용어가 서로 바뀌어 표기되었습니다. 죄송합니다.



글 | 이춘성

라브리(L'Abri Fellowship) 선교회에서 간사와 국제 위원(International Member)으로 청년들과 구도자들을 위해 일했으며 합동신학대학원 목회학석사(M.Div.)와 고신대학원에서 ‘직업과 소명’을 주제로 연구하여 기독교 윤리학 석사(Th. M.)를 하였다. 현재 세종시에 살면서 고신대학교 일반대학원 기독교 윤리학 박사(Ph. D.)과정에서 ‘환대(Hospitality)’를 주제로 연구 중이며, 유성광명교회 협동목사이다.